

# 우린 행복할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도록 돕는다면...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8)



## 목표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비가 더 필요한 곳이 어딘지 찾아보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 어땠나요?

시작 단계에서는 각자가 살았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모임 때 얘기했던 목표를 기억하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의 목표를 어떻게 살았나요?”



## 모임을 여는 활동

### 자비와 용서

**예시 1)**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 일하는 누군가를 초대하여 인터뷰합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터뷰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와 자비의 중요함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 질문들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예시 2)** 우리 사이에 인터뷰를 모아 우리 사이트에 올리거나 3젠 본부에 소식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여기 몇몇 질문 예시가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이 행복을 경험해본적이 있나요?
- 우리가 용서를 청할 때 기쁨과 자유가 피어나는 것을 느껴보았나요?
- 관계가 긴장되어 있고 용서와 화해가 없을 때 우리는어떻게 느끼나요?
-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이에 도시안에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용서와 자비가 진정한 특효약이 될 수 있는상황을 나열하여 봅시다.
- 어떻게 대화와 자비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있을까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회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은 걸음들을 잊지 않습니다.



##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나라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벽과 국경선으로 인해 왕래의 자유와 평화화가 부족해요. 예를 들면 베들레헴으로 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단지 7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이스라엘에 허락을 청해야만 하고, 그마저 항상 받아들여 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은 허락을 받게 되어 이스라엘의 하이파에 가서 그곳에 사는 3젠들과 3일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우리는 아픈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병원에 함께 가는 아이디어를 냈고, 필요한 프로그

램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병원에서 이슬람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날 병동에 있던 환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선 언어가 달랐고, 또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 종교 검문소를 관리하는 군인들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즉시 그들과 같이 놀면서 그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더 이상 우리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고 식사도 함께 헤어질 때는 우리를 작은 선물도 주었어요.

저는 비록 우리가 종교와 문화가 달라도 모두가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고통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한걸음 한걸음 언젠가는 평화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스라엘의  
N. S.와 L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3년 전에 내 동생 도미닉은 사고를 당했어요. 전봇대에 기어 올라가는 놀이를 하다가 감전되어서 아주 위험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회복하는 기간이 몇달이나 계속되었고 혼수상태에 있었던 처음 몇 주동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 큰 사고는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는 7명이고, 5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들이 있어요. 나는 나의 여동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남동생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단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남동생을 도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동생을 돌보아야만 했어요. 매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남동생

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시간을 이동하셨어요. 상황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나의 13번째 생일도 파티없이 지내야 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에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이 사고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 내 형제들 중에 도미닉은 나와 덜 가깝고 자주 싸우는 동생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그에게 갈 때마다 하느님께서 내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동생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무언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동생과 새롭게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생을 보살피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이에요.

동시에 하느님께서 제가 막내 여동생을 돌보는 책임감을 지니며 엄마아빠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아주 기다렸어요.

지금은 동생의 상태가 아주 좋고 군인학교에 등록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관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모든 것이 쉽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요

N. 크로아티아

우린 행복할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도록 돕는다면...



## 깊이 있게



### 황금율



끼아라 루빅  
도시엔 색깔을 칠하자  
10 쪽

우릴 생각하게 만드는 한 복음 구절이 있어요.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마태 7,12). 모든 종교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계명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적혀 있는, “황금률”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루동안 만나는 사람들, 호감이 가는 사람이든 아니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친구이든 원수이든 사랑하는 것이예요! 그들의 상황이 되어보고,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해지길 원할지 떠올려보는 것이예요.

우리 안의 소리가 매 순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알려줄 것이예요.

친구가 배가 고플까요? 내 배가 고플 것처럼 생각하고 먹을 것을 줍시다. 정신적으로 낙담해 있

나요? 그건 내 모습이기도 해요. 그의 고통을 나누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봐요.

그가 어려움에 처해있나요? 내가 그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사랑하도록 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주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이는 우리가 찾는 행복을 발견하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이예요.

가끔 아마도 어려워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예요. 하지만 항상 새롭게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천천히 우리 주변의 세상이 조금씩 변할 것이예요. 지금 이 순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시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낸 하루는 평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예요. 복음을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색깔을 입히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예요. 



우린행복할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도록 베풀는다면...



## 심리학적 요점

라파엘레 카발리에레 용서, 치타 누오바 104-105쪽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 위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욕을 견뎌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관계는 종종 인간 관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고통 당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른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굴욕감을 느끼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략자"와의 접촉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끔 합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 받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처를 메우고 관계를 다시 만들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의 고통을 치유하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 지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평안함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심리적 균형의 위험인 원수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돌아오는 것과 함께, 증오와 비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자동으로 자기의 위치를 다시 살피고 그들이 느낀 상황의 역동성 안에서 책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실수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현실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 이기주의, 자기 방어는 2차적인 역할을 하고 분석은 보다 합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측면을 지닙니다. 각자가 지닌 결점에 대해 다루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용서로써 화해하게 될 때 앞으로는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삶의 지혜의 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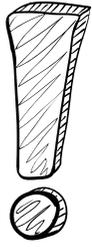
## 화해의 증인들

콜롬비아 화해의 진실  
합동전화 2018년 2월23일  
<http://collegamentoch.focolare.org/2018/02/23/la-verita-nella-riconciliazione/>

벨파스트 북 아일랜드,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합동전화 2018년 4월 28일  
<http://collegamentoch.focolare.org/2018/04/28/belfast-irlanda-del-nord-oltre-i-muri-invisibili/>

알모이, 북아일랜드 공동체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http://collegamentoch.focolare.org/2018/04/28/armoy-irlanda-del-nord-il-coraggio-di-ricostruire-una-comunita/>

우린행복할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도록 노력한다면..



## 한 번 시도해봅시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주위에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또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서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볼 것이예요:

- 인내심을 갖고 **편견없이**, 다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황 안에서 더욱 빛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친구, 친척 또는 다툼 친구들이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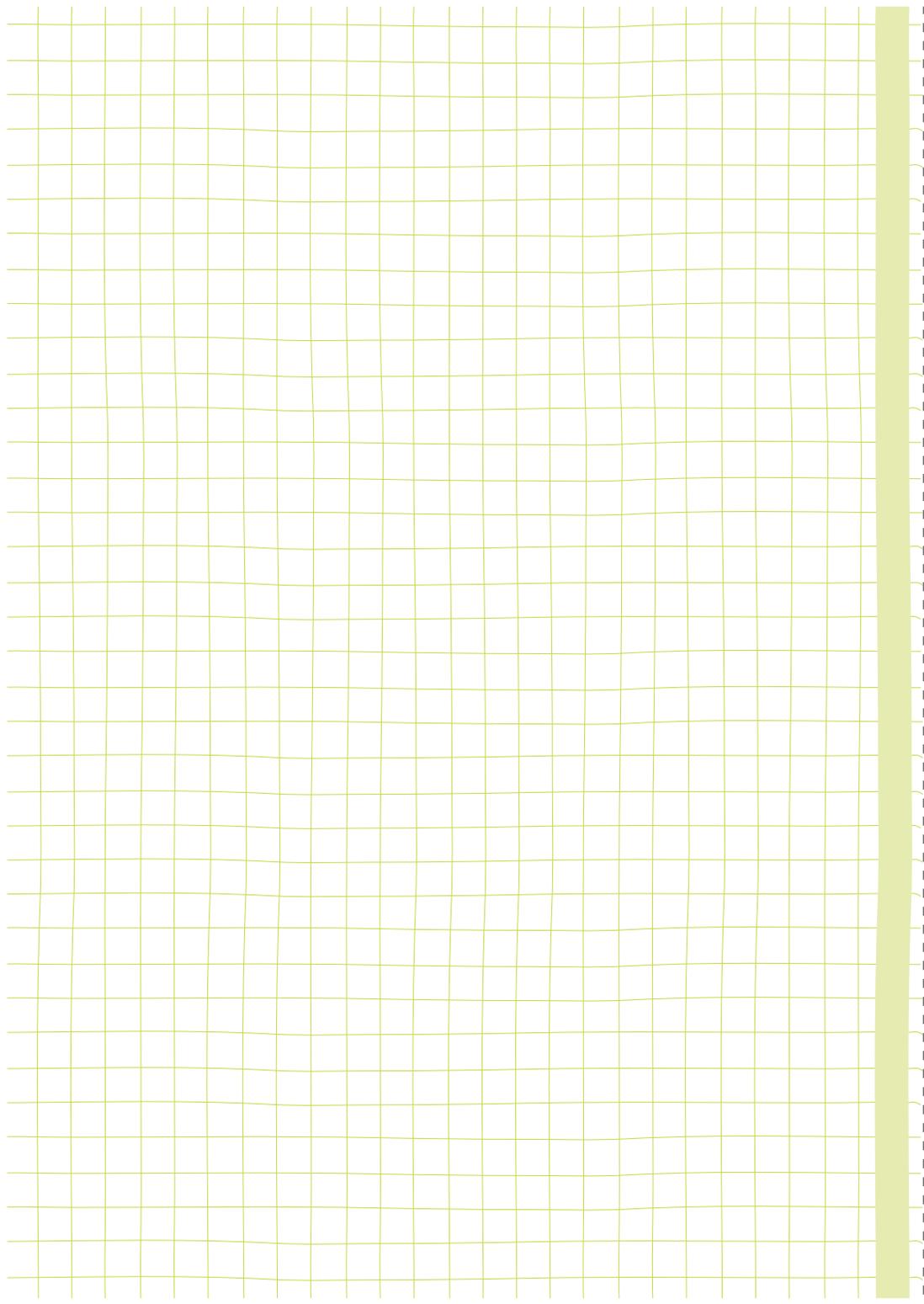
## 어디까지 왔나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일 훈련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직면 한 어려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다음 모임까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나요?

어려움을 만났을때

목표에 도달했을때



## 보조자 공간



### 모임 후 평가하기

- 어떤 분위기 였나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서로 간의 충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경청과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활동 제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다음 모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논쟁이 뜨겁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룰 수 있었나요? 주제에 대해 결론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음 모임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까요?
- 우리 보조자들은 다음 모임 때까지 어떻게 청소년들을 동반하고 그들의 결심을 도울 수 있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영서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행복할꺼야.